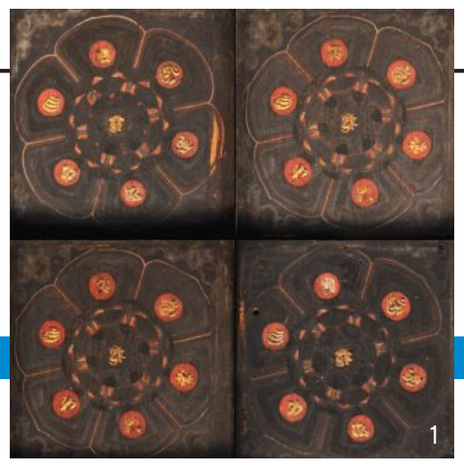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한국의 단청 1-화엄의 꽃

노재학 지음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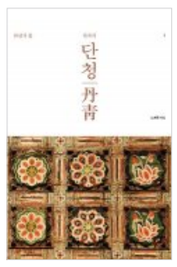
1. 순천 송광사 국사전 천정반자의 단청.
2. 해남 미황사 대웅보전 천정반자의 단청.
3. 나주 죽림사 극락보전 천정반자의 단청.
4. 보성 대원사 극락전 천정반자의 단청.

자연의 꽃, 단청 예술로 꽃피다

미황사 단청 문양은 여느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롭다. 주도면밀한 대칭 구도와 짜임새, 그런 가운데서도 변화를 추구한다. 단청 장엄의 소재는 선학, 연꽃, 모란, 범자 등이다. 비록 네 종류에 불과하지만 소재마다 다른 채색 안료, 개성적인 구성으로 반복과 차이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연꽃 묶음엔 바람의 기운이 담겨 있다. 꽃잎은 한쪽으로 쏠렸고, 연잎도 바람에 가장자리가 뒤집혔다. 몇몇 우물반자에선 갈대 같은 수초들과 함께 바람 타는 장면을 묘사하기도 한다. 맑고 향기로운 연향 가득한 법계임을 암시한다. 모란꽃은 따스한 색감이 무척이나 맑고 다정하다. 특히 봉긋봉긋한 꽃잎에 베푼 주홍색 계열의 자연스러운 바림이 매력적이다. 모란꽃도 연꽃만큼이나 다양한 표정들을 묘사했다."

전통 건축에 입힌 고전의 빛을 '단청'(丹靑)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문양과 오방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질적인 단청의 중심은 "색상이 아닌 문양에



있다"고 한다. 노재학 사진작가의 견해다. 20년간 단청 문양을 카메라에 담아온 그는, 단청에 담긴 형이상학의 세계를 실증적으로 풀어왔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그는 사진, 건축, 불교, 철학, 미술사학 등을 독학하면서 단청의 신비에 푹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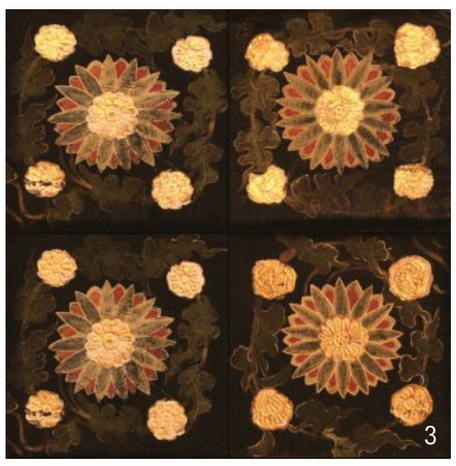
이번에 나온 '한국의 단청 1-화엄의 꽃'은 단청 문양과 사진, 해석을 아우른다. 그동안 저자는 '한국 산사의 단청 세계'를 펴냈으며 2019년엔 '한국 산사의 단청 문양 전국 순회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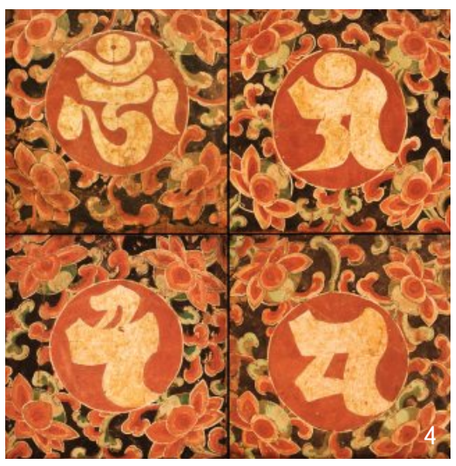
사찰에서 시선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단청이다. 붉고 푸른 빛이라는 뜻을 지닌 단청은 청적황백흑의 오방색 중심을 이룬다. 동양철학 음양오행론에 기초해 정립한 색 체계로 "우주순환의 시간과 공간 방위, 만유상생의 원리, 사람의 기질까지 연결된 심오한 철학적" 배경을 담고 있다.

남도의 사찰은 저마다 특징적인 단청을 자랑한다. 앞서 언급한 해남 미황사 외에도 순천 송광사, 여수 흥국사, 구례 천은사, 보성 대원사, 영광 불갑사, 순천 선암사 등도 저마다 미적 상징이 드리워져 있다.

순천 송광사 국사전의 단청은 육엽범자연화문이다. 육엽연화에 범자를 심은 네 겹의 꽃잎을 감추고 있는 육엽연화는 "안쪽 세 겹은 안으로 오므려 씨방 자리를 감싸고, 가장자리 커다란 꽃잎은 활짝 펼쳐"진 형상이다. 원래 연꽃은 청색 계열 색을 입혔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먹빛에 가깝다. "어둠에서 솟구친 붉은 해의 금빛 햇살"은 마치 '무명(無明)에 놓는 광명의 빛'으로 다가온다.

여수 흥국사 대웅전 단청은 '대칭과 비대칭의 대칭'으로 구현한 장엄예술의 전형이다. 저자에 따르면 1행은 넝쿨연화문-금니 넝쿨연화문-넝쿨연화


3


4

문의 대칭 구도, 2행은 연꽃꽃꽃이-팔엽연화문-모란꽃꽃이의 비대칭의 대칭, 3행은 봉황문-구름·별자리-봉황문의 대칭 구도로 조영했다.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의 천정 단청은 선학, 연꽃, 모란, 범자를 소재로 삼았다. 서남해안 지역의 법당장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이다. 보성 대원사 극락보전,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단청 문양은 장엄의 구조와 소재, 채색 원리, 표현 등에서 친연성이 드러난다.

"한국 산사 천정 단청장엄에서 예술의 자유로움과 창조성, 화려함, 부드러움, 여성스러움 등이 어우러진 낭만주의적 한 흐름을 펼친다. 17, 18세기 서남해안 지역에서 부흥한 '단청에서의 진경시대'라 부를 만하다."

저자는 이 같은 단청에는, 심리학자 융이 말하는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엔 미적 상징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것을 '꽃'이라고 본다. 즉 '범화경', '화엄경'의 경전 이름에도 꽃의 이미지로 장엄했으니 단청 문양은 자연 현상계 꽃이 아니라고 부연한다. 바로 꽃으로 이룬 '화엄 세계', 즉 '화엄의 꽃'이라는 것이다. 〈미진사·5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개 다섯 마리의 밤

채영신 지음

동네 아파트 단지 부근 한 폐가에서 초등학생들이 잇따라 살해된다. 소설은 시작부터 긴장과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인다. 두 명의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태권도장 권 사범이다. 아이들은 모두 백색증을 앓고 있는 세민이라는 아이를 괴롭혔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연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사건 이후 세민은 엄마에게 권 사범이 아이들을 살해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민의 엄마는 두려움 탓에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묻지 않는다.

제7회 황산벌청년문학상 수상작인 채영신의 장편 '개 다섯 마리의 밤'이 출간됐다. 수상작 제목인 '개 다섯 마리의 밤'은 호주 원주민들이 추운 밤이면 개 다섯 마리를 끌어안으며 체온을 유지했다는 데에서 유래했다. 그만큼 춥다는 의미를 지닌다.

소설은 탄탄한 플롯과 인물묘사, 밀도 있는 문장, 적합한 비유들이 조화를 이루며 시종 일관 재미를 선사한다. 학교 폭력이라는 심각한 수치와 모멸의 세계를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사회적 약자'로서 공동체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들의 고통을 들여다본다. 학교 폭력이 이슈가 되고 있는 오늘날, 작품은 약자들이 겪는 고통을 입체적으로 그러면서 냉철한 시선으로 주목한다. 독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등한시했던, 어쩌면 가담하기도 했을 타인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김인숙 소설가는 "이 소설은 가볍게 말하지 않고, 헛되게 다독이지 않고, 속절없이 구원하지도 않고, 다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당신의 자리는 지금 어디인지. 고통을 끌어안는 질문이다. 물론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하다"고 평한다.

〈은행나무·1만3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하는 것은 모두 멀리 있다

장석남 지음

김수영문학상, 현대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장석남 시인. 올해로 등단 35년 차를 맞은 그는 끊임없이 글을 쓰고 사유를 한다. 세상의 구부러진 지점에 주목하고 노래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장석남이 발견한 지혜의 문장들을 엮은 '사랑하는 것은 모두 멀리 있다'가 출간됐다.

두 번째 산문집에서 시인은 예리한 칼 같은 시선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는 대상의 내면을 해체하고 틈을 응시한다. 감정 이면을 세세하게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독자에게 낯선 대상과 감정을 맞닥뜨리게 하려는 의도다.

"역시 글이라는 것은 맨땅에서 파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요즘에 와서 더더욱 절감한다. 묻은 게 없으면 나오는 게 없다는 것은 만고진리지만 그 토양마저도 굳고 거칠면 도통 좋은 씨앗도 배겨나질 못한다. 아무리 깊이 파서 땅을 뒤집어놓아도 비 한 번 오고 나면 굳어져서 호미조차 들어가질 않는다."

특히 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어휘 가운데 슬픔, 고요 등이 눈에 띈다. 시인이 보여주는 슬픔과 고요는 어딘지 다른 구석이 있을 것 같다. 감각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 산문집의 장점이다. 물 긷는 소리부터 날아가는 새의 깃털까지, 서정에 닿아 있는 표현들은 읽는 이에게 또다른 감성의 결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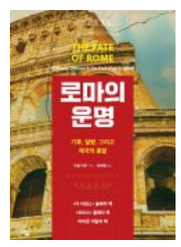
그의 문장에는 세상의 천태만상, 우여곡절을 보고 겪으며 다져진 상흔이 겹쳐 있다. '모과 향기 속'이라는 글에 나오는 "그런데 온 방을 물들이는 이 향기는 상처에서부터 쏟아져 나온 것이리라. 상처가 향기를 짙게 만들어낸다"는 그런 느낌을 환기한다.

〈마음의 숲·1만3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로마의 운명

카일 하퍼 지음, 부희령 옮김



서기 400년 로마에는 28개의 도서관과 856개의 대중목욕탕, 그리고 4만 6602개의 아파트 블록, 빌라 1790채, 곡물저장창고 290곳이 있었고,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다. 로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였고, 지구 인구의 4분의 1의 삶을 지배하는 제국의 보석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476년 서로마제국이 멸망하고 뒤이어 1453년 동로마제국마저 무너지면서 로마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후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몰락한 원인을 찾아내고자 했다.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은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의 말이다. "로마의 쇠퇴는 무절제했던 위대함이 맞닥뜨리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번영은 무르익으면 쇠락하는 게 원칙이며, 정복한 범위가 넓을수록 몰락할 원인이 배가된다."

하지만 미국 오클라호마대학 역사학과 교수이자 수석 부총장인 카일 하퍼는 최근 출간한 '로마의 운명'을 통해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로마제국이 멸망한 결정적 이유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감염병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고고학, 인류학 그리고 생물학과 병리학, 기후학에 이르는 방대한 데이터와 검증을 통해 로마가 엄청난 생태환경의 변화라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버텨냈는지, 그러다가 마침내 사면초가에 처한 제국이 '소빙하기'와 부보닉 페스트(흑사병)의 반복되는 재발 공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몰락하는지 보여준다.

특히 현재의 인류가 코로나 19, 지구온난화 등 '자연과학적 현상과 재앙'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옛날 로마처럼 몰락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교훈을 준다. 〈더봄·2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